

기독교 고등교육 장에서 '미션얼'의 의미

윤상헌 한동대 교수

고등 교육의 장(場)에서 '미션얼'이란 무엇인가 묻는 질문은 중의적이다. 그것은 '미션얼' 자체의 성서적 의미에 대한 물음과 더불어 그 성서적 의미의 '미션얼'의 가정 아래 '무엇'이 고등 교육의 장(場)에서 '대체될 수 없는'(irreplaceable or must-do) 고유한 '미션얼'적인 사명인가 하는 물음, 두 가지 질문이기 때문이다.

'미션'(mission, missio)을 '선교'로, '미션얼'(missional)을 '선교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까닭은 '미션'이라는 말이 '타 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해 전도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으며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 목적에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미시오 데이'(Missio Dei)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해외 선교는 하나님의 일(혹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고 복무하는 여러 가지 많은 '미션얼' 활동과 '미션'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량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사회 정의, 공평 사역, 화목과 치유, 복음 선포와 같은 다양한 국면을 포함하는 사명('missions')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나님의 일 Missio Dei)를 토대와 근간으로 삼아 부름을 받은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션얼'이다.

고등 교육의 장(場)으로서 대학은 그 역할과 사명의 수행에 있어서 교회, 국가, 기업 등의 영역과 구분되는 영역으로 학문과 신앙의 상호작용과 통합이라는 역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미션얼'(선교적)이어야 한다.

특히 '지적 공백'을 '확신의 과잉'으로 매꾸는 '자기 성찰 없는 신념 체계'로서 이데올로기화한 근본주의적 종교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대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 속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내면화되고 개인화된 신앙의 행습, 세속적 욕망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하부구조적 수단으로 전략한 경건,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성숙 이원론, 그로 결과된 자기 분열적 행태는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문화적 결정요인들(권위주의, 사대의식, 조급성과 폭력주의,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 안보 이데올로기와 군사문화, 불신익식, 파벌주의)을 해체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와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고등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대학이 본연의 '미션얼' 역할과 사명의 수행은 개신교 종교개혁이 근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회적 상상'(경제, 공론장, 인민주권의 개념과 실천) - 세상을 인식하

는 틀과 행동양식, 취향을 형성하고 실천하고 그러한 행위를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식(개념과 실천) -의 물꼬를 열었던 것처럼, 앞서 언급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문화적 결정요인들을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가 혼재된 한국적 상황 속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